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은 올해 디지털 아트랩 구축 사업을 시작하고 레지던시 프로젝트도 운영한다.

G.M.A.P, 세계적 디지털 아트랩 구축한다

디지털 아트랩 구축, 레지던시 프로그램 가동,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 허브. 광주시는 지난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됐다. 올해로 개관 1주년을 맞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지엠/ Gwangju Media Art Platform)은 미디어아트 창작자 활성화, 미디어아트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미디어 아트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GMAP이 올해 사업 계획들을 발표했다.

■인력양성과 미디어 아트 콘텐츠 제작
G.M.A.P은 올해부터 지역 미디어 아트 인프라를 활용한 디지털 아트랩 구축 사업에 나선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20억원(국비 60억, 시비 60억)을 투입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창작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창의 인력 양성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최근 창작자 및 연구자(기획자) 선발(4명)을 마쳤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11월에는 결과발표전을 갖는다. 또 광주시교육청(광주예술중학교부설예술영재교육원)과 함께 '청소년 미디어아트 예술영재' 과정을 4월부터 운영하며 미디어아트 관련 석박사 과정 및 청년 작가를 대상으로 '미디어아트 전문가 양성'과 '사운드 제작을 위한 테크니션 양성 과정'도 진행한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올해 계획 레지던시 운영·창의도시 국제포럼 문준용·신도원·정정주 작가 전시

■일상에서 즐기는 미디어 아트
G.M.A.P의 기능 중 하나는 다양한 전시와 시내 곳곳에 설치된 작품을 통해 일상에서 미디어 아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올해 개인전으로는 미디어 아티스트 문준용이 참여하는 몰입형 실감 콘텐츠 전시 'Augmented Shadow : 별을 쫓는 그림자들' (6·7월)이 눈길을 끈다. 또 지역 미디어 아티스트 조명 전시로 신도원 (5월16일-7월23일)과 정정주(11월-2024년 3월) 작가가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에는 이스라엘 파빌리온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기획 전시는G.M.A.P 전관에서 열리며 11월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는 미디어아트 볼록버스터 전시를 유치할 계획이다. 그밖에 2층 제2전시실은 시민, 학생, 전문가 창의 인력의 창작 결과발표전 공간으로 활용한다. G.M.A.P을 상징하는 대형 LED 미디어 월을 활용한 전시도 열린다. 광주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며 한국, 이스라엘, 프랑스, 포르투갈, 조지아 5개국 작가가 참여하는 국제미디어파사드 '디지털 별자리'전과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캐나다와 한국 작가가 함께하는 미디어 파사드 전시가 예정돼 있다. 광주 도심 곳곳을 미디어 아트로 수놓는 미디어 아트 창의벨트 사업도 올해 완료한다. 지난해 완성된 1권역(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2권역(금남로 공원, 광주천 광주교)에 이어 올해는 사작공원(3권역), 양림동 일원(4권역), 송정역(5권역)에서 다양한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기간에는G.M.A.P 미디어 월, 창의벨트 하드웨어 등을 활용, '밤이 아름다운 광주'를 연출할 계획이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허브
현재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시는 광주시를 포함해 총 21개국 22개 도시다. G.M.A.P은 지난해 추진했던 포르투갈 브라가시와이 협업 프로젝트 '미니 사운드 맵'을 올해도 이어가며 미디어 월을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간 네트워크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총회 참석, 국내외 유명 미디어아트 기관 방문을 통한 도시 간 네트워크 사업 진행,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은 작품을 임대해주는 '아트 셰어링' 사업을 진행중이다. 한전 KDN 전시 모습.

전남문화재단 "예술작품 빌려드려요" '아트셰어링' ...나주농업기술원·한전KDN 임대·전시

‘예술작품 빌려주세요’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은 지난 2017년부터 예술작품 대여사업 ‘아트셰어링’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 미술작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공공기관과 기업, 공공시설 등에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지역민들에게는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작가들에게는 임대료를 지급, 미술품 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기획이다. 지금까지 무안읍 코로나19백신편방집중센터, 구례군 보건의료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등에 총 26회에 걸쳐 184점의 예술작품을 임대했다. 재단은 올해도 아트셰어링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한전KDN과 사회적 공헌과 지역상생 협력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재단이 임

대-전시를 진행하고 한전KDN이 임대료 및 작품 운송비 등의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나주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교육관에 지역 작가 작품 22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중순부터는 나주 한전KDN에서 청년과 장애예술인 예술작품 17점을 임대·전시할 예정이다. 재단은 지난달까지 전남 지역 작가들을 대상으로 '아트셰어링' 임대를 위한 미술 작품 공모를 진행했다. 올해는 전년도 121점보다 30점이 증가한 151점이 응모됐으며 최종적으로 서양화, 한국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 21명, 63점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1년간 재단 명의로 참여하는 아트페어에 참가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모아모아 댄싱 비비런’을 체험 중인 관람객. (ACC 제공)

‘모아모아 댄싱 비비런’ 환경의 소중함 배워요 ACC, 체험형 전시 4일~8월27일 아시아문화박물관

ACC 캐릭터 비비와 비비런을 따라 고성오광대 탈춤을 추며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상방향 콘텐츠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일명 체험형 콘텐츠 ‘모아모아 댄싱 비비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오는 4일부터 8월 27일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아시아 각국의 자연과 흥겨운 우리 가락을 배경으로 고성오광대 탈춤을 체험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 전시다.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특성상 현장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작품은 아름다운 자연에서 말뚝이와 재회를 때

개로 자연유산과 환경에 대한소중함을 은유적으로 전달한다. 체험은 모두 4개의 공간에서 일대일로 10분가량 진행되며 임무를 달성해 체험을 마치면 정보 무늬(QR 코드)로 영상을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이강현 전당장은 “비비와 비비런의 실감나는 고성오광대 탈춤을 따라 하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라며 “아시아의 문화유산과 디지털 융합기술을 매개로 한 실감 콘텐츠 등이 점차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봄날의 정취’

국윤미술관 22일까지 국중효 전

봄날의 정취를 만나다. 국윤미술관(관장 운영월) 소장품전이 오는 22일까지 미술관 2전시실에서 열린다. 미술관 설립자인 서양화가 국중효 작가의 작품 중 최근에 작업한 대작 위주의 그림을 선보이는 전시다. 〈사진〉 전시작은 구상과 비구상 작품을 아우른다. 봄의 전령인 화사한 매화와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고목이 어우러진 작품이 눈길을 끈다. 비구상의 매력을 전하는 ‘생명의 순환’ 시리즈는 따스한 색감과 자유로운 붓터치로 독특한 화면을 선사하며 초록색 화면에 검고 붉은 선으로



역동하는 새의 움직임을 표현한 '새' 등의 작품이 인상적이다. 목포대 명예교수인 국작가는 오지호미술상 심사위원, 이인성 미술상 심사위원, 광주시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등을 지냈다. 일·일요일 휴무. 문의 062-232-733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헤르만 헤세, 내 안의 데미안을 찾아서’

광주문예회관 ‘11시 음악산책’, 25일 광주공연마루

‘사랑에 관한 여덟 가지 변주, 올 댓 러브(All That Love)’를 주제로 마티네 콘서트를 열고 있는 광주문예회관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이 두 번째 무대를 마쳤다. 25일 오전 11시 광주공연마루. 4월의 주제는 ‘헤르만 헤세, 내 안의 데미안을 찾아서’로 그의 대표작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시달라프’를 통해 나다운 삶, 홀로 서는 용기,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콘서트 가이드 김이근이 해설을 맡았으며 피아노 김소영, 바이올린 이혜니, 박강현, 비올라 장은경, 첼로 이호찬으로 구성된 피아노 콰텟 ‘영 앙상블’이 슈만, 보로딘, 바흐의 곡을 들려준다.

첫 번째 주제는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다.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로 엄격한 규율과 권위에 억눌린 주인공을 통해 어떻게 ‘나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연주곡은 슈만의 ‘나바’다. 두 번째 주제는 소설 ‘데미안’을 통해 조력자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성장을 통한 진정한 홀로 서기를 발견해본다. 연주곡은 헨델-할보르센의 ‘파시칼리아’다. 세 번째 주제는 소설 ‘시달라프’로 일상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연주곡은 보로딘의 ‘현악 4중주 2번 3악장’이다. 네 번째 주제는 ‘헤세의 유산’이다. 반전주의



김이근 김소영
자, 평화주의자였던 그가 남긴 정신적 영향력과 문화계에 남긴 유산을 찾아가본다. 연주곡은 슈만 ‘피아노 5중주 1악장’이다. 전석 1만원. 유료회원 선예매 4일 오전 11시, 일반회원 오후 2시부터 예매.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및 티켓링크(1588-7890) 예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박하사탕’ 오디션 광주시립오페라단, 출연자 선발...13일까지 온라인 접수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올해 상반기 두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 (7월 7일-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과 오페라 ‘박하사탕’ (8월 14일-15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이다. 오페라단은 두 작품에 출연할 주·조연 출연자 선발을 위해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다. ▲관련학과 졸업생 ▲관련 분야 유학 경험자 ▲오페라 작품에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기심사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한다. 실기심사는 25일-26일 광주시립오페라단 스튜디오에서 열리며 응시곡은 작품별로 ▲지방 배역 아리아 1-2곡 ▲자유 아리아 1곡 등이다. 필히 개인 반주자를 동반해야한다. 13일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오디션 최종합격자는 28일 광주문

회예술회관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서울시오페라단을 역임한 이경재가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독일 오스나부르크 극장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송만훈 지휘자가 카메라타 전남과 호흡을 맞춘다. 13회 정기 공연 작품으로 무대에 올리는 ‘박하사탕’은 동명의 영화를 바탕으로 시립오페라단이 지난 2021년 초연한 작품이다. 이번 무대는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를 역임한 정지용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가 예술감독과 지휘를, 조광화가 연출을 맡았다. 김인재 상임지휘자가 이끄는 광주 시립합창단, 광주시립발레단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문의 062-412-250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